

# '아기곰' 김민석... 두산의 희망

개막 2연전 3안타 2타점 펄펄 새 톱타자 위상 탄탄하게 구축 팬들 팀 연패에도 "그대 있기에" 김 "팀 도울 수 있는 역할 최선"

개막 2연전에서 뼈아픈 연패를 당한 두산 베어스의 팬들은 새로운 톱타자 김민석(20)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김민석도 "우승팀도 한 시즌에 50번은 패한다"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더 건실적"이라며 앞을 보며 나아가기로 했다.

두산은 22일과 23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인 SSG 랜더스와의 프로야구 개막 2연전에서 모두 패했다.

외국인 원투 펀치를 내세우고도 2패를 당해 상처가 더 컸다.

하지만, 소독은 있었다.

지난해 11월 롯데 자이언츠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김민석은 개막 2연전 모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9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을 올렸다. 타율은 0.333, 출루율은 0.400이었다.

과감하게 김민석은 1번 타자로 낙점한 이승엽 두산 감독은 "김민석이 개막전에서 2타점 3루타를 쳤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나왔다"고 흐뭇해했다.

23일 경기 전 만난 김민석은 "개막전에



두산 베어스 톱타자 김민석은 22일 SSG와의 개막전 4회 초 2사 1·2루에서 4-3으로 뒤집는 2타점 3루타를 쳤다.

두산 베어스

출전한 건 처음이었다. 확실히 긴장했고, 개막전 첫 타석에서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삼진을 당했다"며 "그래도 경기를 치르

면서 점점 안정됐고, 4회에 2타점 3루타를 쳤다. 그 당시에는 좋았다"고 말했다. 22일 SSG와의 개막전 4회 초 2사 1, 2루

에서 김민석은 4-3으로 뒤집는 2타점 3루타를 쳤다.

SSG가 6-5로 역전승하긴 했지만, 두산

김민석도 역전 3루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루에서 포효도 했던 김민석은 "동점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는데 역전까지 성공해 그런 동작이 나왔다"고 떠올렸다.

올 시즌 KBO리그에서는 '장타력을 갖춘' 강백호(Kt wiz), 야시엘 푸이그(키움 히어로즈)가 1번 타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출루에 능한 홍창기(LG 트윈스)는 '전통적인 1번 타자'로 LG 타선의 선봉에 선다.

김민석은 굳이 구분하자면 '전통적인 1번 타자'에 가깝다.

김민석은 "나는 아직 홍창기 선배, 강백호 선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몸을 낮추며 "나만의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톱타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두산은 김민석에게 자신감, 과감한 스윙 등을 주문했다.

김민석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톱타자는 초반 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들었다. 매번 잘 칠 수는 없지만, 아웃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스윙하겠다"며 "물론 선구안 연구도 하고 있다. 칠 수 있는 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새 팀에서 톱타자로 출발한 김민석은 롯데를 향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있다.

김민석은 "지금은 롯데를 떠났지만, 정말 좋은 기억만 있다"며 "롯데에서 배운 걸 잘 활용해서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여름 FA 10명 방출" 맨유 살생부 만지작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13위로 밀리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전통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대규모 선수단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25일(한국시간) "맨유가 선수단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소 10명을 방출할 계획"이라며 "다음 시즌 유럽 클럽대항전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선수단 축소의 이유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맨유의 후방 아모링(오른쪽) 감독이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수비수 조니 에번스(37)와 골키퍼 톰 히튼(38)은 이번 시즌을 마치고 은퇴할 가능성이 높고,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빅토르 린델뢰프는 팀을 떠날 예정"이라며 "임대한 마커스 래시퍼드(에스터 빌라), 안토 니(레알 베티스), 제이든 산초(첼시)를 매각해 새로운 공격수 영입 재원을 마련하고, 카세미루도 이적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에번스는 지난 4개월 동안 선발 출전이 없고, 마지막 출전도 지난해 12월 18일이었다. 또 내달 39세가 되는 히튼은 2월 초부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여서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가 예상된다.

맨유는 특히 정규리그 13위로 밀려 EPL 성적만으로는 다음 시즌 유럽 클럽대항전 티켓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에서도 16강에서 탈락하고, 카라비오컵에서도 8강에서 몰러난 맨유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만 8강에 오른 상태다.

## 피츠버그 배지환, 마이너 강등 5명서 생존... 개막 엔트리 청신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 엔트리 승선을 노리는 배지환(25·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시범 경기를 마쳤다.



배지환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리켈스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2025 MLB 시범 경기 마네스타트 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남겼다.

### 시범 경기 최종전 2타수 무안타 1볼넷... 메이저 잔류

잭 스윈스키와 피츠버그 외야 백업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 배지환은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이날 비록 안타는 때리지 못했지만, 득점 1개를 추가해 시범 경기 13득점으로 팀 내 1위를 지켰다.

배지환의 시범 경기 최종 성적은 타율

0.381(4타수 16안타), 1홈런, 4타점, 13득점, 3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017이다.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선 배지환은 상대 선발 베일리 오버로부터 볼넷을 골라낸 뒤 폭투 2개로 3루까지 갔다.

그리고 2사 후 터진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우전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이후 두 차례 타석에서 삼진과 내야 땅볼

로 몰러난 배지환은 8회 말 시작과 동시에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배지환이 유일한 득점을 올린 피츠버그는 마네스타에 1-5로 패해 14승 15패로 시범경기를 끝냈다.

경기가 끝난 뒤 피츠버그 구단은 토마스 해링턴과 카스 풀머, 버치 스미스, 테너 레이니(이상 투수), DJ 스투어트(1루수·외야수) 5명의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보냈다.

이 중 스미스는 2023년 KBO리그 한화 이글스에서 개막전 선발로 출전했다가 2

%닝 만에 부상 때문에 마운드를 내려간 뒤 한국을 떠난 선수다. 배지환은 이번 명단 조정에 서도 살아남아 26인 개막 로스터 진입 가능성을 키웠다.



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2대 총선 인선 연수원 선거투표소용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저자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 220쪽 | 15,000원

# 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감당하신 본 소송의 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아무 이름 남김을 바라지 않고 온갖 지탄과 야유 속에서도 긴 세월 꿋꿋이 선거정의를 바로 잡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도둑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인사말 중

도태우 스카이 구입 문의 02)522-6595